

광주 인접 지자체 기후위기 공동 대응

市·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상생 간담회

가뭄·폭염·홍수 등 중장기 대응체계 논의

광주시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광주 인접 지자체들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특히 해당 지자체장은 원탁회의를 정례화해 기후 위기 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도 함께 풀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광주 인접 5개 시·군 대표로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한중 장성

군수, 강영구 나주시장, 박철원 화순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정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가뭄 관련 물관리 협력 체계 구축뿐 아니라 폭염·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공동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지자체 현안을 공유하고 이상기후로 일상화된 자연재난의 위협 속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비상시 생활·농업·공업 용수를 지자체 간 유연하게 이용하고 유역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주호·동북댐, 나주호-덕남정수장 연계 등 통합 물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인접 생활권 지자체 간 '가뭄·폭염·홍수 등 기후위기 환경회의(가칭)'를 통해 통합 물관리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자 응급체계 구축, 기타 기후위기 대응 등 장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

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50년 만의 가뭄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8년부터 폭염·홍수·가뭄까지 유례없는 기후위기가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뭄종합대책에 광주·전남이 제시한 대책 대부분이 포함됐다. 기후위기 원탁회의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되자"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지난 2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인접 5개 시·군 단체장 및 관계기관장과 가뭄 관련 중앙부처 공동 건의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전략작물직불금 5만5천여ha 433억 지원

전국 42% 점유 최대 신청...벼 대체작물 전환 선도

벼 대체작물 전환을 위해 올해 최초 시행한 전략작물직불금에 전남에서 5만5천133ha가 접수돼 총 433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남도는 4일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5천133ha를 신청받아 지원액이 4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에서 13만2천240ha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전남이 5만5천133ha를 신청해 전국 42%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2만5천157ha, 경남 1만1천802ha, 경북 9천185ha, 충남 5천208ha 순이었다.

작물별로 동계작물은 4만9천52ha로 이 중 사료작물이 3만5천645ha, 보리, 귀리 등 1만 650ha, 밀 2천751ha 등이었다. 하계작물은 콩 2천402ha, 사료용 곡

물 2천900ha 등 총 6천83ha다. 특히 청년 농업인 신청이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 청년농이 14%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40대 이하(3.8%)보다 3.7배나 높았다.

이는 청년 농업인이 식량 자급률 향상과 미래 농업 정책에 관심이 높고 농촌 활력의 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전남도가 2000년까지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청년창업 및 정착, 문화, 복지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 직불금은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신청 작물의 적기 파종·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7월부터 9월까지 영농 이행 실태 등 점검을 통해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생활지원비 개편

입원·보건소 등록 격리 참여자만 지원...이달부터 적용

전남도는 4일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

항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입원·격리자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전남형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모집

9일까지 접수...최대 6천만원 지원

전남도는 4일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한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있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다. 지원 유형은 '기초단계'다.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에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9일까지 서류를 갖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휴폐업 중이거나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보급사업 국비 지원금이 올해부터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전남도는 기업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지방비 50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6월 말까지 기술성·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문의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81~3) /김재정 기자

"상무지구 BYC사거리 우회하세요"

오늘부터 2호선 가시철·복공판 설치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5일부터 서구 상무지구 상무중앙로 BYC사거리 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공사는 BYC교차로 일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가시철과 복공판 설치 작업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공사 기간인 6월 말까지 3개 차로 가축소된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중앙로 공사 기간 시민의 교통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차량유도 안내 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

치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정할 계획이다.

또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사 구간과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광주교통방송 예고를 통해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무중앙로 구간 차로 축소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시민들은 출퇴근때 기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변경된 차로 표시에 유의하길 부탁드립니다.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 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본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상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종 대지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은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내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